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11>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

선(禪)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찾아가고 교(敎)란 팔만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차근차근 그 자리를 찾아간다. 부처님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 바탕을 찾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선과 교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임시 방편이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이 방편은 쓸모가 없어진다.

아플 때 약을 써서 병이 나으면 치료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방편은 부처님의 실상(眞相)을 드러내기 위하여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임시로 쓰는 약과도 같다. 실상이 드러나면 이 약은 필요 없고, 이 약이 필요 없기에 모든 방편이 사라지는 자리를 우리는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필경공에서 실상의 이치가 드러나고, 실상의 이치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필경공이 된다. 이런 내용을 <선가귀감> 9장에서 설명한다.

然 諸佛說經 先分別諸法 後說畢竟空 祖師示向 迹絕於心地 離解於心源  
그러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들은 먼저 모든 법을 분별하고 있지만 맨 뒤에 가서는 필경공을 말한다. 조사 스님들이 배운 실상(眞相)은 중생들의 마음 자리에서는 그 자취가 끊어지지만 그 마음의 근원에서는 실상의 이치가 드러난다.

이 내용에 대한 풀이는 규봉(780~841) 스님의 <도서>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따와서 소개해 보겠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가르침을 펼치는 것과 조사 스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은 그 일의 바탕이 제각기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야 함으로써 '실상의 이치'를 자세히 드러내야 했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곧바로 제도해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실상에 깊이 통하게 해야 했다. 그들의 마음을 깊이 통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말을 잇어야 가능한 일인 만큼, 말끝에 그 자취를

## 필경공,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 말자취 끊어질때 실상 드러나

남기지 않는다. 중생들의 마음에서 조사 스님들의 말 자취가 사라지면 마음의 근원에서 '실상의 이치'가 나타나니 신(信)·해(解)·수(修)·증(證)을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취되고, 부처님의 경전이나 율장(律藏)과 논(論) 소(疏)들을 따로 익히지 않아도 저절로 그 뜻이 다 통한다."

서산 스님은 <도서>에서 인용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의지처가 되어야 함으로써 '실상(眞相)의 이치'를 자세히 드러내야 했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곧바로 제도해야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실상에 깊이 통하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따와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였다.

부처님은 근거가 다양한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온갖 법을 말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모든 법을 부정한다. 대승경전에서 부처님이 온갖 법문을

설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한 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예들이다. 모든 법은 많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실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법이 부정되는 자리, 모든 방편이 부정되어 비어 버리는 자리를 '필경공(畢竟空)'이라고 한다. 이 필경공이야말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이 나타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로서 실상을 드러내는 이치이다.

실상의 이치는 말자취가 끊어진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난다. 조사 스님들이 던지는 짧막한 가르침은 중생들의 온갖 시비 분별을 끊어주는 도구이자 화두이지만, 이 말의 자취가 중생들의 마음자리에서 사라질 때 실상의 이치가 그 마음의 근원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말의 자취가 중생들의 마음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지인 필경공, 이것은 마침내 도를 증득한다는 뜻의 '필경증(畢竟證)'과도 같은 말인데, <돈오입도요론>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도를 닦는 이는 무엇으로 증득을 삼습니까?" "공극적인 증득으로써 증득을 삼는다."

"어떤 것이 공극적인 증득입니까?"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을 '공극적인 증득'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증득할 것이 없는 것'이며, 어떤 것이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입니까?"

"밖으로는 색과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안으로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경계를 얻은 이를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한다. 깨달음을 증득할 때 증득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을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을 얻을 때에 또한 '증득할 것도 없는 것'이라는 그 생각조차 내지 않는 것'을 '증득할 게 없다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서산 스님은 계속하여 말한다.

胡亂指注 臂不外曲  
제멋대로 꿰맞추어서 말을 하더라도 너의 팔이 밖으로 굽지는 않으리라.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 행복동 사람들

저는 조금만 기쁘면 돈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그런가요?

혹시 가끔이라도 욕식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아, 그렇군요. 그럼 부처님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따를게요.

보살님은 불교에 기쁘면 돈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겠습니까?

올해로 15년이 됩니다. 집안도 행복하고 큰 병도 없는데 이상합니다.

에볼도 열심히 드리는데...

최소하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 아주 조금... 그런데 그것이 현세에 영향을 주나요?

어머! 그걸 어떻게 드리는데!

늘 선한 마음으로 살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이지요.

진리는 매우 평범합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 '스님'이라 부르는 까닭은?

우스개 소리부터 할까요? 언젠가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목사님'과 '신부님'에서 '님'자를 빼면 목사·신부인데, 스님은 '스'나?'며 스님 호칭에 대한 실없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지의 소치라며 혀를 찰 불자들이 많았지만, 정작 스님을 '스님'으로 부르는 까닭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스님'은 원래 자기 스승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스님들을 부르는 보통명사로 정착했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님에서 가운데 '승'이 떨어져 '스님'이 됐다"는 설과 "승(僧)이 변해 스님이 됐다"는 설이 있지요. 두 가지 설 모두 다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 '승(僧)'자에 높임말 '님'자를 붙여 '승님' '승님' 하던 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승'의 받침 'ㅇ'이 탈락해 '스님'으로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승님'이 '스님'이 된 것이지, 아니면 한문 전용시대에 스님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 승님이 된 것인지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86)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32강 무지의 양상에 따라 생명을 분류하는 혜능

혜능이 중생들을 분류하는 방식은 독창적이다. 인도식 전통은 무시한다. 예컨대 그는 태생이며 난생을 동물들의 수태방식으로 읽지 않고 인간들의 무지의 양상으로 읽는다. 기실 생명을 뜻하는 불교식 용어 '중생'은 깨치지 못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 한 가운데 인간이 있다는 것을 혜능은 알고 있었다.

혜능은 불교 본래의 정신인 리더쉽(관)도 구주의(radical pragmatism)에 휩쓸렸다.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보살이라도 그렇지, 해바라기나 달팽이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길은 없지 않은가. 혜능은 뛰어난 교사답게 법을 깨치는데 있어 수많은 다양한 근거가 있고 아울러 각각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 철저했다.

- 무지의 양상에 따른 생명 분류 그는 '중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1) 난생: 미성(迷性)이라. 어둠 속을 헤매면서 '여러 업장(業障)을 짓는' 유형을 가리킨다.
  - 2) 태생: 습성(濕性)이라. 목은 습성에 따라 살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류를 가리킨다.
  - 3) 습생: 수사성(隨邪性)이라. 잘못된 길

을 쫓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음의 안정이 없는 유형이다.

4) 화생: 견취성(見趣性)이라. 자아의식이 강해, 스스로 합정에 빠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5) 유색: '조작적 마음으로 힘부르 시비(是非)를 판단하여, 안으로 무상(無相)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불교 밖의 세속인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6) 무색: '안으로 공은 마음을 지키나, 타인을 공경 공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들은 단지, 돌아보지 않고 화살처럼 뺨는 직심(直心)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복덕(福德)을 닦지 않는 이기적 유형이다. (여기서부터는 자신만을 구원하려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소승의 유형들을 적고 있는 것 같다)

7) 유상: '중도(中道)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지각하고 사유하여, 법상(法相)을 애착(愛著)하여, 입으로 붓다의 삶을 말하나, 마음은 그를 본받아 행치 않는' 유형이다.

8) 무상: '오직 좌선을 통해 망상만 제거하려 할 뿐, 자비희사(慈悲喜捨)와 지혜의 방편을 배우려 하지 않는, 목적이 아닌

재 같은 이들'이다. (전형적인 소승의 부류들이다)

9) 비유상비무상: '고정된 진리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 그러나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이 아직 남아 있는 유형'을 가리킨다. (가장 성숙한 유형이나 아직 근본적 장애 하나인 윤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 부류)

혜능은 중생들을 수태의 유형과는 상관 없이, 이렇게 '도의 수준과 그에 따르는 장애물의 유형'으로 번역해 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

과 업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자기 속의 본래의 힘과 광명을 믿고 따르는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이다. 보살은 중생들이 자기 속의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이끄는 사람들이다. 그 믿음이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대승기신(大乘起信)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왔다.

그런 점에서 보살은 아무 것도 해 준 바가 없다. 그는 다만 중생들이 자신들을 바랄 수 있도록 거울을 준비한 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도움을 주었으면서

之理)에 도달하지 못해 아인(俄人)의 구분 없이 잃어지 못했으니, 이를 일러 중생(衆生)이라 한다. 이 병(病)을 떠난다면, 사실상 중생이 멸도를 얻은 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래서 말한다. '망심(妄心)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보리(菩提)라 하노니,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은 본시 평등(平等)하다!' 어디 다시 멸도(滅度)할 것이 있겠는가."

<금강경> 제 3장의 구결에 적힌 혜능의 이 말은 불교, 특히 돈교(頓敎)의 목표와 방법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도움을 주었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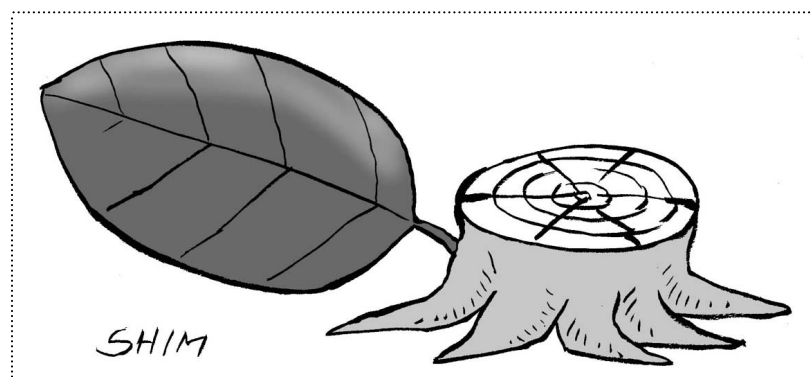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생사의 두가지의미 혜능은 "깨달음(菩提)은 다만, 망심(妄心)의 거처를 허용하지 않는 것(妄心無處即菩提)"인데, 그때 '생사(生死)와 열반(涅槃)은 본시 평등(平等)하다'고 했다. 불교를 말할 때마다 언필청 회자되는 말이고, 조지훈의 시 '승무'에도 인용되어 유명해진 이 말을 부연해 보자.

생사(生死)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인연(因緣)들이 화합하여 연기(緣起)하는 객관적 세계의 흐름'이다. 무상(無常)한 법계(法界)는 부단한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 속에 있다. 이 객관적 법(法)으로서의 생사 반대쪽에 주관적 의미의 생사(生死)가 있다. 즉, 그 법계의 변화를 "그냥 두지 못하고," 그 사태를 나의 관심과 중흥에 따라 시비하는 마음 말이다. 우리 모두는 가는 것을 슬퍼하고, 오는 것을 기뻐한다. 혹은 어떤 것들은 가는 것에 환호하고,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렇게 여래여거(如來如去)의 법(法)에 대해 무심하지 못하고, 거기 탐착(貪著), 혹은 염오(厭惡)를 일으키는 데, 그렇게 주관적 마음이 움직이므로써 비로소 생사(生死)가 있게 되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가고 올'이나, '살고 죽음'을 말할 수 없다. 혜능이 오랜 은둔을 마치고 나오면서, "흔들리는 것은 것발이 아니고, 바람 또한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한 법문을 깊이 새겨야 한다.

요약하자면, 간택의 판도라를 열으로써 우리는 중생이 되었다. 그것을 다시 닫았다면, 그는 부처이다. 혜능은 이 뜻을 이렇게 부연 한다. "중생(衆生)과 불성(佛性)은 본래 다름이 없다. 사상이 있으면 중생, 사상이 없으면 부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 멸도(滅度), 얻은 바 없다



도 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역설을 혜능은 이렇게 적어주고 있다.

"혜매던 사람이 자성(自性)을 깨달으면, 마침내 알게 된다. 붓다가 자성(自性)을 내보이지 않았고, 자지(自智)를 가진 적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언제 중생을 건네준 적이 있었겠는가. 다만 범부가 스스로 제본심(本心)을 못 보고, 붓다의 뜻을 모르고, 제성(諸相)에 집착하고, 무위의 이치(無爲

이 표준군를 놓치고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문득, 어느 날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이를 것이다.

부연하자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면서 도 "건네준 바 없다"는 것은 보살이 혹 기질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금강경>의 적이 있었겠는가. 다만 범부가 스스로 제본심(本心)을 못 보고, 붓다의 뜻을 모르고, 제성(諸相)에 집착하고, 무위의 이치(無爲